

# 滄溪의 生涯와 文學

金 光 淳

《目 次》	
I. 序 論	3. 登場人物의 性格
II. 生涯와 文學思想	4. 葛藤構造
III. 義勝記	5. 文學的 價値
1. 創作 年代와 背景	IV. 結 論
2. 意味機能段落	

## I. 序 論

滄溪 林泳은 高麗 忠烈王朝 大將軍 忠淸道都指揮使 判司宰寺事를 지낸 林庇의 20代孫으로, 字를 德涵, 號를 滄溪라고 하고, 本貫은 羅州이다.

그가 우리 國文學界에 알려진 것은 心性의 擬人小說인 義勝記를 지은 데서 由來한 것이다. 數年前에 筆者가 天君小說 全體의 構造分析을 試圖할 때 그 일환으로서 義勝記를 다룬 바 있다.<sup>1)</sup> 그러나 거기에서는 義勝記만의 研究가 아닌 天君小說 전체에 대한 研究의 일부로서 취급되었을 뿐이어서, 여기서는 義勝記의 作者인 滄溪의 生涯와 그의 文學思想을 考究하고, 散文으로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義勝記의 構造分析和 文學的인 價値를 穿鑿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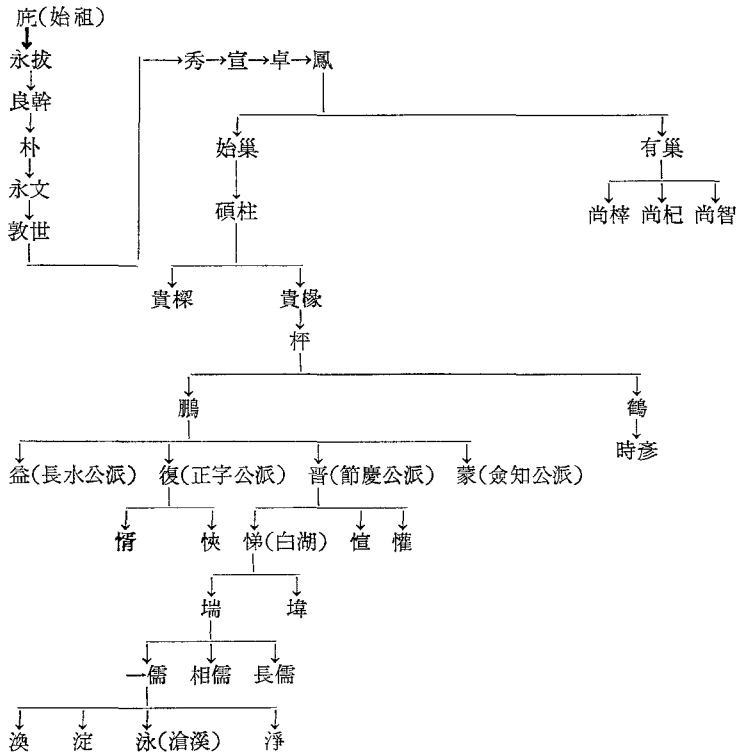
그래서 먼저 滄溪 林泳의 生涯와 交友關係 그리고 學脈과 滄溪의 文學思想을 考究하고, 그의 文學 作品中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義勝記에 對해서, 創作 年代와 背景, 그리고 이 作品의 構造分析을 爲해 意味機能段落을 考察하고, 이 作品에 登場하는 人物의 性格과 作品의 葛藤構造를 밝혀 義勝記의 文學的 價値를 考察함으로써 滄溪 林泳의 文學的인 面貌를 살펴볼까 한다. 다만 그의 文學作品中 漢詩文에 對한 研究는 稿를 달리해서 論하고자 하여 後稿로 미룬다.

## II. 生涯와 文學思想

滄溪 林泳은 義勝記의 著者로서 字는 德涵이요, 號를 滄溪라고 하며, 本貫은 羅州로

1) 金光淳, 天君小說研究(螢雪出版社, 1980) pp.142-148.

始祖 庇의 20代孫이다. 庇는 高麗 忠烈王朝에 大將軍 忠淸道都指揮使 判司宰寺事를 지냈으며, 그의 9世孫 卓은 海南監務를 지내다가 太祖가 朝鮮을 開國하자 벼슬을 버리고 會津(今羅州)으로 돌아가 世居하였다. 卓의 7世孫 鵬에 이르러 비로소 羅州 林氏의 기틀이 잡혀 官이 廣州府尹에 이르렀는데, 그가 滄溪에게는 5代祖가 된다. 또한 滄溪는 「愁城誌」의 著者인 白湖 林悌와 同本인데, 白湖는 鵬의 第三子 晉의 아들이며, 滄溪는 鵬의 第二子 復의 高孫이다. 參考로 그의 家系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筆寫本으로 傳하는 滄溪先生 年譜<sup>2)</sup>에 依據하여 그의 生涯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滄溪 林泳은 朝鮮 仁祖 27年(1649 A.D.) 陰 1月 19日 壯義洞 外家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린 시절을 거의 母親의 訓導下에서 成長했는데, 이는 父親의 外職仕宦 때문이다. 8歲 때는 恩津縣에 赴任하는 父親을 倍從하여 그곳에서 四書와 史略 等を 閱讀하고 縣內에 귀양와 있던 前府使 李興祿에게 學問을 배웠다. 13歲되던 顯宗 2年에는 임기가 끝난 父親을 모시고 羅州 會鄕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四書三經을 다 읽은 그는 이 해에 叔祖 東里翁 埴에게 周易을 배우게 되었으며, 그후 이곳 鄕里에서 史類 百書를 두루 읽어 見識을 넓혔다.

2) 滄溪先生年譜(筆寫本, 成均館大學校 圖書館所藏).

16歲되던 顯宗 5年(1664 A. D.)에는 龍安 任地로 赴任하는 父親을 隨行하였다가, 이듬해에 上京하여 父親과 親交가 있던 當代의 巨儒 靜觀齋 李端相에게 受學함으로 비로소 性理學으로의 그의 學問方向이 定해지게 되었다.<sup>3)</sup>

顯宗 7年(1666 A. D.), 18歲가 된 滄溪는 司馬試에 應試하여 壯元하고 잠시 遷鄕하여 朱子大全을 熟讀하였는데, 거의 침식을 잇을 정도였으며 이로 인하여 平生을 病苦에 시달리게 되었던 바, 이때가 滄溪의 學問이 처음 뿌리를 내린 때이다.<sup>4)</sup> 또한 이 해부터 滄溪는 하루에 일곱 번씩 敬齋箴, 四勿箴 등을 記誦하여 心身을 가다듬는 七省例의 마음에 부끄러운 바, 마음을 속인 바를 기록하는 日傍圈點劃例를 行하여 行動擧止를 더욱 신중히 함으로써 儒者의 資質을 다듬고자 노력하였다. 九月에 다시 上京한 그는 靜觀齋의 分부르 玄石 朴世采를 찾아뵈고, 靜觀齋와 玄石 兩門을 往來하면서 수학하였으니, 玄石은 金尚憲의 門下에서 性理學을 터득하여 文廟에 從祀된 一世의 儒宗이다. 이후 그는 顯宗 9年(1668 A. D.), 고향에 돌아올 때까지 漢陽에서 오로지 讀書에 專念하여 大學, 語類, 二程全書, 性理大全 등 理學諸書를 두루 熟讀하였다.

21歲되던 顯宗 10年(1669. A. D.)에는 北開로 赴任하는 父親을 倍從하였고, 이듬해 22歲에는 父親과 함께 上京하여 會試에 壯元하였으며, 23歲되던 顯宗 12年(1671 A. D.)에는 大科에 應試하여 庭試文科 乙科에 及第하였다.

顯宗 13年 承政院假注書를 거쳐 28歲(肅宗 2年, 1676 A. D.)에 正六品 成均館典籍에 올랐으며, 肅宗 6년에는 大臣들의 친거로 司諫院正言을 지내고 弘文館 修撰에 拜命되어 經筵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후 司諫院正言, 司憲府持平, 弘文館修撰, 弘文館校理 등을 지내고, 肅宗 7년에는 司憲府獻納을 거쳐 賜暇讀書의 榮光을 입었으며, 그해 겨울에는 吏曹佐郎兼守禦從事官에 除授되었다.

35歲되던 肅宗 9年(1683 A. D.)에 母親의 喪을, 그 이듬해에 父親의 喪을 당한 그는 鄕里로 돌아와 居喪하였으며, 3年 喪을 마친 肅宗 12년에는 吏曹正郎, 司憲府執義, 檢詳, 舍人, 司諫院司諫, 司僕寺正, 承政院同副承旨 등에 除授되었으나, 病苦가 심하여 모두 疏를 올리고 나아가지 않았다.

肅宗 13년에는 禮曹參議, 弘文館副提學, 成均館大司成, 黃海道觀察使에 除授되었으나 모두 赴任하지 않았다. 이듬해 同王 14년에는 綾州牧使를 拜命하여 수년 동안의 召旨不絶의 聖恩에 감사하고자 病軀를 이끌고 上京하였다가, 다시 吏曹參議兼承文院提調를 拜命하고, 이어 全羅道觀察使에 除授되었으나 모두 就任하지 않았다.

肅宗 15年(1689 A. D.)에는 星州牧使에 拜命되었으나 辭退하였고, 同王 16년에는 工曹參判에 特授된 것에 이어 大司諫, 大司憲, 大司成 등에 移拜되었으나 病苦가 더욱 심하고 宦路에 뜻이 없던 滄溪는 모두 辭退하였다.

3) 先生嘗曰 靜觀不但有文字指導之功 使我早知向學之方 亦賴其開發云(滄溪先生年譜, p. 11).

4) 此先生學問 初頭立脚處也(滄溪先生年譜, p. 12).

그러나 이와 같은 累次의 辭退에도 불구하고 공을 특히 아꼈던 領議政 南九萬, 左議政 朴世采 등의 奏請으로 10月에는 江華留守에 特進되어 마침내 사양 할 수 없게 된 滄溪는 이듬해 正月에 江華 任地에 赴任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를 적극 후원한 스승인 玄石 朴世采의 訶音을 赴任 7·8日만에 接하게 된 滄溪는 辭退의 疏를 올려 還鄕하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肅宗은 副提學을 除授하여 漢陽으로 불러 올렸다. 10月에 病勢가 惡化된 滄溪는 辭退를 奏請하자 肅宗은 그를 閑職인 工曹參判으로 轉職시켜 病을 治癒하게 하였으며, 左議政 柳尚運과 大司成 崔奎瑞의 啓請을 받아 들여 藥物을 下賜하였을 뿐만 아니라, 날이 추워지자 더욱 악화된 병세로 公務를 처리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吏曹判書 尹趾善의 奏請을 允許하여 비록 官職에 就任하여 公事를 돌보지는 않았으나, 祿俸을 지급하게 하였고, 領議政 南九萬과 左議政 柳尚運이 藥物을 계속 지급할 것을 請하는 啓도 許하였다. 그해 11月 그믐에는 中使를 보내어 病勢를 묻고 약제 7種과 燒木 20冊 炭 2石을 내렸다.

그러나 이와 같은 朝野의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병세는 점점 더 심해져, 이듬해 肅宗 22年(1696 A. D.) 陰 2月 初6日에 48歲를 一期로 永眠하니, 왕은 知製敎 崔奎瑞를 보내어 致祭하고, 아울러 銀과 비단을 내려 葬禮에 보태 쓰게 하였다. 그의 墓는 羅州 傑山村에 있으며 羅州의 滄溪書院과 咸平의 水山祠에 祭亭되고 있다. 滄溪는 早熟하여 3歲에 母親으로부터 글을 배워 문득 깨우쳤으며, 8歲에는 능히 詩賦를 지을 수 있었고, 12歲에는 老師宿儒들도 어려워 하던 書經의 莽三百章을 하룻 동안 窮究하여 마침내 깨달아 徐花潭에 比肩되기도 하였다.<sup>5)</sup> 13歲에는 벌써 叔祖에게서 易經을 배우게 있었는데 자못 叔祖를 앞지르는 바가 많아 奇才의 稱을 들었으며, 博覽強記한 그는 일찌기 洪慶의 古碑를 한번 보고 외울 수 있었고, 諸書들을 熟讀한 후에는 文章을 모두 머리에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자신은 述懷하기를,

사람들은 나를 聰明過人하다고 하나, 사실은 나의 책 읽는 방법이 다른 사람과 차이가 있는 것을 모르는 까닭이다. 讀書할 때는 雜念으로 흔들리지 않고 精神이 오직 冊子 위에만 있어 眼力이 항상 紙背를 透過한다. 그러므로, 한번 본 것은 곧 외우게 되고 외우게 되면 오래도록 잊지 않으니, 朱子大全을 읽을 때 그 精密함이 이와 같았다.<sup>6)</sup>

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와 같은 聰敏한 資性에도 불구하고 끼니를 거르면서까지 篤學한 까닭에 늘 病弱하였다. 18歲에 朱子大全을 읽을 때는 더욱 誠力을 다한 탓으로 平生 持病의 禍<sup>7)</sup>를 불러 일으켰던 바, 이는 滄溪의 學究熱을 端的으로 證明해 주고 있다. 그의 이와 같은 病弱의 體質은 性理學에 根底한 그의 人格과 더불어 仕宦을 좋아하지 않은 決定的

5) *ibid.* p. 7.

6) *ibid.* p. 12.

7) 是歲 讀書過苦 以致食積 仍成一生沈痼之根抵(滄溪先生年譜, p. 12).

要因으로 作用하여 累次に 걸쳐 除授된 벼슬에 거의 赴任하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의 肅宗은 滄溪를 무척 아껴 벼슬의 除授가 끊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持病을 治癒하도록 閑職을 내려 요양하게 하였으며, 滄溪의 末年에는 藥物을 계속 내리기까지 하였다.

君王의 寵愛와 大臣들의 아낌으로 인한 數次的 宦歷生活에도 불구하고 清廉剛直했던 滄溪는 늘 生活이 窮乏하였다. 그가 龍譚에 居處를 정하였을 때는 困窮이 極甚하여 끼니를 이을 수 없게 되었으나, 이를 민망히 여긴 守令方伯들이 보내온 米穀을 거절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貧寒한 者를 보면 옷을 벗어 주었다고 한다.<sup>8)</sup>

이러한 人品 위에 成立된 滄溪의 交友關係는 顯宗 6年(1665 A. D.) 17歲의 나이로 上京하여 靜觀齋 李端相의 門下에 受學하게 되면서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靜觀齋는 漢學 四大家 中의 一人인 月沙 李廷龜의 孫으로 門下에서 李喜朝, 金昌協, 金昌翁 등의 쟁쟁한 學者들을 배출한 當대의 名儒이다.<sup>9)</sup> 滄溪는 그의 門下에서 性理學의 本格的인 수업을 받았는데 이 때에 이들과 사귀게 되었으니, 滄溪 死去 後 李喜朝, 金昌協은 祭文을 金昌翁은 挽詩를 지어, 그를 哀悼하였으며, 특히 金昌協은 滄溪集의 序文에서 滄溪의 器材를 일러 受道之器, 致道之材<sup>10)</sup>라고 하여, 滄溪가 道學, 即 性理學에 基底하고 있음을 示唆하고 있다. 藥泉 南九萬도 滄溪集의 序文을 썼는데, 그는 스스로 이르기를, 滄溪보다 비록 그가 年長이기는 하나 [20歲가 年上임] 學問에 있어서는 미치지 못하는 바가 많다<sup>11)</sup>고 하고, 滄溪는 文章도 아름다우나 學問은 더욱 높다고 力讚하였다.<sup>12)</sup> 그리고 滄溪가 玄石의 門下에 出入하면서 사귄 朋友로는 遲川 崔鳴吉의 孫 崔錫鼎, 崔錫恒 兄弟를 비롯하여 領議政을 지낸 申院, 兵曹判書에서 致仕한 俞得一 등이 있다.

이 밖에 吏曹參判 吳道一, 戶曹參判 趙亨期가 그의 死後에 祭文을 지었고, 右議政 申翼相, 吏曹判書 朴泰尚 등이 挽詩를 보냈다. 또한 그는 尤菴 宋時烈, 同春 宋浚吉의 門下에서도 修學한 畿湖學派의 學者<sup>13)</sup>였으므로 西人에 屬하였으나, 결백한 그의 人品은 世人의 推仰을 받았으며, 學問과 才調는 朝廷의 第一이라는 衆評<sup>14)</sup>을 받았다.

滄溪는 일찌기 時俗이 가벼움을 한탄하며 이르기를, 옛적의 賢人은 經天緯地의 才調와 濟世安民의 德을 가진 자라도 마치 어리석은 듯 가장하여 드러내지 않았는데, 지금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여 或 一事라도 그 마땅함을 얻거나 或 一語이라도 理致에 적합하거나, 或 文章이 조금 뛰어난고 見聞이 조금 풍부하거나, 조그만 技藝라도 남보다 나은 것이 있으면 곧 스스로 감추지 못하며 이를 특히 자랑하지 않으면 이로써 사람을

8) *ibid.* p. 26.

9) 韓國人名事典(서울: 新丘文化社, 1976) p. 784 參照.

10) 公 爲人重厚而通明 寬宏而淵深 可以受道之器 致道之材(金昌協, 滄溪集 序).

11) 余於德澗 年雖加長 學則多遜(南九萬, 滄溪集 序).

12) 滄溪林公德澗 自在志學之年 文藝之高 已大嘆於世 及其求道問學 不屑於詞藻之末 專心於性理之原(南九萬, 滄溪集序).

13) 韓國人名事典, *Op. Cit.* p. 784 參照.

14) 士友間游談 咸推德澗之才學 以爲朝中第一(南九萬, 滄溪集序).

능멸한다고<sup>15)</sup> 탄식하면서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었다.

滄溪는 四書三經을 비롯하여 性理大全, 二程全書, 朱子大全, 近思錄 등의 性理書들을 기회 있을 때마다 반복하여 보고 劄錄을 지었는데, 26歲 때에는 退溪와 栗谷의 書類들을 熟讀하고 四端七情과 理氣之說에 關한 그의 見解를 밝히고 있는 바, 여기서 살펴 보고자 한다. 그는 이르기를,

退溪는 이르되, 四端은 仁·義·禮·智에서 發하고, 七情은 外物이 그 形을 자극(觸)함으로 中에서 動하여 發한다고 하였던 바, 살펴 보건대 四端七情의 立名의 差異에 있어서 四端은 根本을 좇아 이름을 붙인 것이요, 七情은 發하는 數에 依據한 것이다. 그리하여 根本을 좇은 故로 性命의 中에 근원하며 오로지 스스로 깨달은 者만이 擴充培養할 수 있는 것이며, 發하는 數에 基因한 故로 或 理일 수도 있으며 氣일 수도 있고, 或 善일 수도 있고 惡일 수도 있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여 心中에 內在하여 있으므로 사람은 모름지기 節制와 謹愼으로써 이를 다스린다. 四端과 七情의 다른 바가 正히 이에 있는 것이니, 만약 七情이 오로지 外物에서 發한다고 한다면 크게 잘못이다. 이와 같다고 한다면, 性이 發하여 情이 된다는 말은 虛語인가?<sup>16)</sup>

라고 하여 退溪의 論旨와 그의 見解의 差異를 밝힘으로써 畿湖學派로 기울었지만 다시 또 이르기를,

理와 氣는 서로 分離될 수 없는 것이다. 中庸에 이른 바 잠시라도 떨어질 수 없다고 하였고, 程子が 이른바 조금의 間隔도 없다고 하였으니, 진실로 疑惑되는 바 없으며 論辯할 바도 없도다.<sup>17)</sup>

라고 하여, 栗谷의 理氣一元論에 찬성했으나 氣發理乘論에는 약간의 異見을 제시하였으니,

一切의 惇理한 것이나 一切의 循環한 것을 통털어서 어찌 氣發理乘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더한 까닭으로 善心은 氣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그 善이 理에서 發한 것이므로 理發이라 하고 惡에도 理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惡은 實로 氣의 지나치고 不及한 弊서 나온 것이요, 理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 아니므로 氣發이라 한 것이다. 理氣가 서로 分離되지 않는 것이라 함은 옳지만 善과 惡이 모두 氣發理乘이라 한 것은 아마 틀린 것 같다. 善과 惡의 由來를 두고 말할 때에 理에서 一個의 心이 나오고 氣에서 一個의 心이 나온다는 말은 아니다. 心은 하나뿐이지만 善이 되고 惡이 되는 分野는 精微하게 分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sup>18)</sup>

라고 하여 비록 畿湖學者였으나 理氣說에 있어서는 李珥의 理氣一元論에는 찬성하고 氣發理乘說에는 반대의 입장을 취하여 栗谷과 一致하지 않는 주장을 내세웠다.<sup>19)</sup>

15) 古之賢人 有經天緯地 濟世安民之才與德 不自露者愚也 今世人不然 或有一事得其宜 或有一言合于理 或詞章麗聞見富 或少小技藝出乎人 輒不能自掩 不特不自掩 街之不特街之 因以是凌人(滄溪集, 日錄).

16) 又曰 四端何從而來乎 發於仁義禮智之性 七情何從而發乎 外物觸其形而動於中 緣境而出焉 按四端七情立名之異 四端從本命名者也 七情據見歷數者也 從本故其原於性命之中者 便自曉然人當擴充培養而已 歷數故或主理或主氣或善或惡 皆包在內人 須用制節慎謹之功 其異處正在此 若謂七情專發於外物 則大不是 如此則性發爲情乃虛語耶(滄溪集, 日錄).

17) 理氣不能相離也 則乃中庸所謂不可須臾離 程子所謂顯微無間者 固無可疑無可論(滄溪集, 日錄).

18) 滄溪集 卷二十五, 日錄, p. 27.

韓國文化史大系 Ⅳ, 宗教, 哲學史(高天民族文化研究所, 1972) p. 444.

19) 金光淳, 天君小說研究(螢雪出版社, 1980) pp. 74-80 參照.

그러나, 滄溪 林泳은 前述한 바와 같이 어린 시절을 靜觀齋 李瑞相의 門下에서 修學했었지만 其實은 拙修齋 趙聖期와의 往復한 서한이 빈번하였던 점으로 보던 靜觀齋보다는 拙修齋의 영향이 매우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拙修齋 趙聖期는 傳奇小說을 즐겨 써서 張承相傳을 비롯하여 作者에 異說은 있지만 彰善感義錄 등을 지었고, 또한 그는 燕岩 朴趾源의 許生에서 磻溪 柳馨遠과 함께 列擧된 바가 있는즉, 拙修齋와 燕岩은 비록 시대의 차이로서 하나는 性理學을, 또 하나는 北學을 강조하였으나, 그들은 실로 일맥 상통하는 점이 없지 않았다. 따라서 滄溪도 靜觀齋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만큼 그는 小說에 대한 전통적인 見解가 자못 깊었으리라 類推된다. 그의 遺稿가 滄溪集에 傳하고 있다.

### Ⅲ. 義勝記

#### 1. 創作年代와 背景

義勝記는 滄溪 林泳의 나이 16歲(甲辰年)<sup>20)</sup> 때인 朝鮮 顯宗 5年(1664 A. D.)의 作品이다. 滄溪가 靜觀齋 李瑞相의 門下에서 本格的으로 性理學을 배우기 시작한 顯宗 6年보다 1년 앞서 지은 作品이기 때문에, 滄溪가 性理學에 對한 確固한 信念下에서 지었다기 보다는 당시에 流入된 中國小說과 壬亂後의 軍談小說, 그리고 稗官小說 등에 자극을 받아 創作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義勝記가 그 이전에 出現된 天君小說의 手法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것으로 앞으로 논의될 作品의 葛藤構造에서 證明될 것이다.

滄溪의 年譜를 보면, 그는 義勝記를 지은 해에 外職에 부임한 부친을 모시고 龍安에 있었다.

縣內에 萬頃 都擧元이라는 者가 文名이 있어 나아가 文選과 賦 十餘篇을 배웠는데, 읽기를 백여 번이나 거듭하였던바, 이후부터 文辭가 더욱 進步하여 詩賦와 表·策을 짓는데 막히는 바 없었다고<sup>21)</sup> 한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義勝記같은 短篇정도의 作品은 그의 習作期에 능히 創作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니, 그가 16歲에 이러한 작품을 지었다는 記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 2. 意味機能段落

① 天君이 王位에 오르던 元年, 靈臺에 올라 明堂에 坐起했는데, 德이 넓어 백성들은 太平을 찬송하다.

② 그런지 3年만에 天君의 德이 점차 쇠퇴해지다.

20) 滄溪集 卷之十六, 義勝記의 題目下에 創作年代로서 甲辰年이라 明記되어 있음에서이다.

21) 滄溪先生年譜(筆寫本, 成均館大學校 圖書館所藏本) p. 10.

③ 도적이 침범하여 나라는 곤경에 빠지고 天君은 황야로 도망하여 10年 동안 천하를 떠돌아 다니다.

④ 惺惺翁이 나타나 도적을 물리치고 天君을 다시 王位에 오르게 하다.

⑤ 天君은 惺惺翁으로 하여금 총리의 자리에 앉게 하고, 백성들에게 그의 명령을 따르도록 하다.

⑥ 남은 도적을 소탕하기 위해 인재를 모집하니 孟浩然이란 자가 나타나다.

⑦ 天君은 그를 元帥로 삼아 나라 일을 도모하다.

⑧ 天君은 孟浩然이 군사를 내어 남은 도적을 치는데 힘써 줄 것을 당부하다.

⑨ 孟浩然이 意馬를 타고 忠臣의 갑옷을 입고 仁義의 방패를 들고 진군하다.

⑩ 도적의 要害地인 宦海란 험한 곳에 이르다.

⑪ 孟浩然은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바다를 뛰어 넘고 판문을 뚫고 들어가 그 산을 뽐아 구렁을 매워 도적들을 평정하다.

⑫ 몇몇 남은 도적이 날뛰며 군사로써 무찌르려 할 제 惺惺翁이 임금에게 文德을 선전하면 저절로 틀 아래 歸順하리라 諫하다.

⑬ 임금은 군사를 쉬게 하고 文教를 중상하여 도적을 치지 않으므로 남은 도적은 항복받지 못하다.

### 3. 登場 人物의 性格

義勝記는 天君小說의 嚆矢인 東岡 金宇顚의 天君傳과 비슷한 量의 短篇인 점이나, 天君을 主人公으로 登場시키고 그 아래에 忠臣型과 奸臣型 人物들의 對立, 葛藤에서 事件이 展開되고 있다는 點에서 그 關聯性을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義勝記도 天君의 나라에서 天君을 中心으로 事件이 展開되는 天君小說의 一種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등장되는 人物의 性格을 考察하기 위해 먼저 이 作品의 主人公인 天君을 中心으로 說明하되, 그 아래 등장되는 忠臣型 人物과 奸臣型 人物의 兩型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1) 天君

義勝記의 主人公으로 등장한다. 여기서의 天君은 南冥의 神明舍圖에서의 太一眞君과 같은 人物로서 心의 擬人이다. 그런데 心을 天君이라 한 것은 擬人小說이며 天君小說의 現存 最古의 作品인 東岡 金宇顚의 天君傳에서 처음 보인다. 그러나, 이미 心을 天君이라 한 것은 오래 전부터이니, 그 語源을 보면, 荀子의 天論篇에서

心居中虛 以治五官 夫是之謂天君<sup>22)</sup>

이라고 하여, 心은 中虛에 居하면서 以治五官하니 때저 이를 天君이라 일컫는다라고 하

22) 荀子, 天論篇.



였고, 范浚도 그의 心箴에서 心에 對하여

君子存誠 克念克敬 天君泰然 百體從令<sup>23)</sup>

이라고 하여, 君子가 誠을 지녀서 능히 생각하고 능히 공경하면 天君은 泰然하고 百體가 命令을 따른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天君에 對한 記錄으로는 荀子の 解蔽篇에서도

心者形之君也 而神明之主也 出令而無所受令 自禁也<sup>24)</sup>

라고 하여, 心者는 形之君으로 神明의 主다라고 하였고, 淮南子 泰族訓에도

心者身之本也 身者國之本也<sup>25)</sup>

心者는, 身의 本이요, 身者는 國의 本이다라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原道訓篇에서도

心者五臟之主也<sup>26)</sup>

라고 하여, 心者는 五臟의 主다라고 하였으니, 心은 곧 形體를 支配하는 君主요, 肉身 이 存在하는 基本이며, 精神이 作用하는 主體인 것으로 性과 情을 統攝하는, 곧 心統性情의 上位概念으로서의 心을 擬人한 것이 義勝記에서 일컫는 바의 天君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天君은 모든 天君小說 곧 天君傳, 天君演義, 愁城誌, 天君實錄 등에서 등장하는 天君과 마찬가지로의 의미로서 心을 擬人하여 이 作品의 主人公으로 등장시킨 것이다.

다만 天君小說의 嚆矢 作品인 天君傳의 天君이 天上界와 地上界라는 二元性을 띤 人物인데 比해서, 義勝記의 天君은 地上界의 人物이 王位에 올랐음이 다른 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義勝記에서 天君이 즉위하는 첫 部分을 보면,

天君이 即位하던 元년에 그는 靈臺에 올라 明堂에 坐起하였는데, 그의 마음은 맑고 깨끗하여 아무런 私心이 없었으며, 德은 너무나 넓어서 무엇이랴 일컫기도 어려웠다. 그리하여 天君의 百姓들은 배를 두드리며 太平을 노래하면서 노닐었다.<sup>27)</sup>

라고 하여, 古小說의 導入部에서 일반적으로 踏襲되어 온 主人公의 家系와 先代의 偉대한 業績에 對한 言及은 전혀없이 바로 天君의 자리에 올랐다고 하고, 天君의 마음은 맑고 깨끗하여 私心이 없었으며, 德望이 넓고 커서 百姓들은 太平歌를 부르며 살았다고 하여, 시작부터가 실제 그대로의 現實의 人物 즉 可能한 世界의 描寫란 點에서, 天君傳

23) 范浚, 心箴.

24) 荀子, 解蔽篇.

25) 淮南子, 泰族訓篇.

26) 淮南子, 原道訓篇.

27) 天君即位元年 登靈臺 御明堂 泊乎無爲 澹乎自持 蕩蕩乎無能名焉 君之民 鼓腹而遊(滄溪集, 卷之十六, 義勝記).

에 비하면 人物 描寫가 매우 소상히 서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天君小說의 嚆矢 作品인 天君傳의 天君은 非凡한 超人像을 보이는 仙界의 人物임을 의도적으로 과시하고 있는데 反하여, 義勝記에서는 실제 地上界의 人物이 王位에 오른다. 이러한 點으로 보던 義勝記의 天君은 地上의 平凡한 君主로서 그 生涯의 一面을 小說에다 반영시킨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의 天君은 前述한 바 다른 天君小說에서와 마찬가지로 心의 擬人이다. 그래서 天君이 임금자리에 즉위한 뒤에 天君의 백성들은 모두가 태평을 찬송했다. 그런데 3년 만에 天君의 德望이 점차 쇠퇴하여지매 도적이 침입하여 나라는 어지러워져 위기에 놓이게 된다. 이때 天君은 황폐한 들판으로 추방되어 그 자리를 잃게 된다. 이때 충신인 惺惺翁이 등장하여 어지러워진 天君의 나라를 위해 도적을 물리치고 추방된 天君을 다시 모시고 돌아오게 된다. 그러나 남은 도적이 있어 다시 또 괴롭힘에 孟浩然이란 장수를 등장시켜서 이를 元帥로 삼아 무찌르게 한다. 그후 天君은 다시 군사를 쉬게 하고 文教를 숭상하여 干戚을 양편 섬돌 위에서 춤추어 옛날 虞帝의 故事를 본받아 太平歲月을 누리게 하는 主役을 맡은 人物이다.

그리고 天君傳이 16世紀의 小說인데 비해, 義勝記는 18世紀의 小說이었던 만큼 義勝記의 天君은 現實 속에서 가능한 君主로서의 天君으로 크게 變貌되었음은 당시 流入된 中國小說과 壬亂 이후에 나온 英雄小說 등의 主人公 描寫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天君이란 人物의 個性이나 人物描寫는 전혀 보이지 않고 다만 행동하는 모습만 그리고 있다. 다만 도적에 쫓겨 방황하고 있을 때 惺惺翁을 등장 시키면서 天君의 困窮한 처지와 그의 이름과 연호가 간접적으로 示唆되고 있으니, 이를 보면,

天君의 德이 점점 쇠퇴하였다. 그러하자, 도적이 그 틈을 타서 침범하기도 하고, 해치기도 하고, 손발을 묶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살을 빼어내기도 하여 해마다 도적의 세력이 커졌으므로 天君의 나라는 몹시 곤란에 빠졌다. 天君은 할 수 없이 황야로 도망하여 온 天下에 떠돌아다니기를 마치 옛날 晉公子 重耳가 외국에서 亡命 생활하듯한지 십 여년이나 되었다. 그는 가끔 고국으로 돌아갈 마음이 남몰래 간절했으나 도적이 날뛰어 길이 막혔으므로 뜻을 이루지 못했을 뿐더러 또한 마치 저 어린이가 일찌기 시골을 떠나서 아득히 집으로 돌아올 줄 모르는 듯했다. 때마침 한 사람이 스스로 惺惺翁이라 하며 도적을 물리치고 天君을 모시고 돌아와서 다시금 임금 자리에 올랐다. 그의 일이 마치 옛날 項梁이 楚王 孫心을 세운 故事와 같을 뿐더러 天君의 이름이 楚王의 이름 心과 같으므로 드디어 그의 號를 義帝라 일컫고, 火德으로 임금 노릇을 하여 夏의 年號를 쓰고 그제야 敎文을 내리기를……<sup>28)</sup>

라고 하였을 뿐 天君에 대한 구체적 性格이나 人物描寫는 거의 보이지 않아 사건이 전개

28) 君之德漸不克于初 有盜乘其弊 侵凌我 殘害我 怙亡我 剪刈我 年年而賊日滋 君之國畿不振 君遂遁于荒 周流四海 若晉公子之在外者 十餘年 時或有思歸之念 隱然而萌油然而生 盜賊縱橫 道路擁隔 有志未就 且如亦子之早離鄉 迹不知其歸 適有一人 自稱惺惺翁 稍除國賊 喚君而歸 復即位于大位 以其求而得之 如項梁得楚王故事 王之名又與楚王同 遂號義帝 火德王 行夏之時 遂下敎曰…… (滄溪集 卷之十六 義勝記).

되는 과정에서 天君의 人性을 類推 할 수 있을 뿐이다.

(2) 惺惺翁

義勝記를 비롯한 天君小說에서의 惺惺翁은 忠臣型의 人物로서 善人으로 등장한다. 이는 곧 惺惺의 擬人으로 마음의 환한 모양, 똑똑한 모양, 혹은 분명한 모양이란 뜻이니,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 혹은 分明한 사람이란 뜻이다. 康熙字典에서는 惺字에 對해 靜 가운데도 昧하지 않은 것을 가리켜 惺이라 한다<sup>29)</sup>고 하였다.

退溪는 朱子가 敬의 意味를 규정한다고 말하는 四個條를 敬의 意味로 파악했다. 즉 朱子가 말하는 四個條란 程子の 主一無適과 整齊嚴肅說, 謝上蔡가 말하는 常惺惺法說, 그리고 和靖 尹彥明의 心收斂不容一物說이다. 요컨대 退溪는 敬의 意味를 主一無適, 整齊嚴肅, 常惺惺法 그리고 心收斂不容一物로 규정했다.<sup>30)</sup> 그러니, 敬에 대한 意味規定에 있어서 程子, 謝氏, 尹氏 說이 그 表現은 비록 다르다 하더라도 그 實은 모두 같은 것 이라고 退溪는 朱子의 말을 引用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를 붙잡아 敬으로 들어가는 것은 곧 나머지 세 가지로 通하는 것이 된다고 보았다.<sup>31)</sup>

따라서 常惺惺法은 敬의 意味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常惺惺法에서의 惺惺의 擬人이 곧 여기서의 惺惺翁이다. 뿐만 아니라 上蔡語錄에도 敬의 意味를 설명하면서 常惺惺法을 주장한 바 있으며,<sup>32)</sup> 劉基의 醒齋銘에도 밝음은 惺惺에서 생기고 심란함은 冥冥에서 생긴다<sup>33)</sup>고 한 것 등으로 보아도 常惺惺法의 擬人인 惺惺翁은 이 作品中에서 善人型의 人物 즉 天君을 바르게 보필하려는 忠臣型의 人物임을 알 수 있다.

義勝記에서의 惺惺翁은 天君小說의 嚆矢作인 天君傳에 등장하는 太宰 敬과 그 이름만 다를뿐, 같은 人物로서 兩者는 各 作品中에서 도적을 쳐부수는 主役을 맡은 점도 거의 일치되고 있다. 義勝記에서는 天君이 도적에 쫓겨 황야를 떠돌아 다니는 것을 보고, 惺惺翁이 도적을 물리치고 天君을 다시 王位에 오르게 함으로써 총리직을 얻게 된다. 그리고 天君이 孟浩然으로 하여금 남은 도적을 군사를 일으켜 무찌르게 하려하니, 惺惺翁이 임금에게 文德을 선전하면 저절로 歸順하리라고 忠諫함에 天君이 군사를 쉬게 하고 文教를 숭상하게 되었다고 하는 點에서 보면, 惺惺翁은 天君에게 가장 충직한 忠臣型의 人物로 등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惺惺翁의 경우도 天君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의 性格을 간접적으로 說明되고 있을 뿐, 구체적인 人性이나 個性의 說明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29) 靜中不昧曰惺 晝夜明 故惺(康熙字典).

30) 退溪集 卷七, 聖學十圖, 第四大學圖, 大學經.

31) ibid. 卷二九, 答金而精.

32) 敬是常惺惺法(上蔡語錄).

33) 昭昭生于惺惺 憤憤生于冥冥(劉基, 醒齋銘).

(3) 孟浩然

義勝記에서의 孟浩然是 天君을 위하는 忠直한 武將으로서 善人型 곧 忠臣型의 人物로 등장 한다.

孟浩然이란 語源은 孟子에 나오는 浩然之氣를 잘 기른다<sup>34)</sup>는 말에서 이를 擬人하여 大將軍 孟浩然이라 命名한 듯하다. 따라서 孟浩然是 孟子的 浩然之氣를 뜻함으로, 곧 道義에 뿌리를 박고 公明正大하여 조금도 부끄러운 바 없는 도덕적인 용기로서 이를 擬人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義勝記의 本文 가운데 孟浩然에 對한 人物 描寫를 보면,

孟浩然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됨은 지극히 강직하고 또한 웅대한 기운이 있으며, 일찍이 孟子에게 자라났으므로 그의 姓 孟氏를 따르게 되었다. 그는 이에 應募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비록 千萬 사람이 앞에 있다하더라도 용감히 나아갈 것이라고 하였다. 天君은 그를 元帥로 삼아서 지극히 尊待하고 정성껏 대접해서 그와 더불어 나라 일을 꾀하였다……. 浩然是 意馬를 타고 忠臣의 갑옷을 입고, 仁義의 방패를 들고 앞에는 勿字旗를 세운 채 한길을 따라서 행진하는데, 모두들 規律에 맞았다. 이를 구경하는 사람들은 이야말로 참된 장수구려! 하고 감탄했다.<sup>35)</sup>

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와 같이 孟浩然是 天君의 나라에 남은 도적을 무찌르기 위해 人材를 모집함에 자원하여 군사를 이끌고 宦海라는 도적의 要害地를 뚫어 소탕하는 忠臣型의 人物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天君小說의 嚆矢 作品이라고 하는 天君傳의 大將軍 克己와 公子 志와 이름만 다르게 命名되었을 뿐 같은 武將型의 人物로서 兩作品에서 도적을 평정하는 役으로 등장되고 있다.

(4) 盜賊

이 作品에서는 惡人型의 人物 즉 天君을 괴롭히는 奸臣型 人物의 구체적인 이름은 나오지 않고 막연한 盜賊이라고만 불리어지고 있다. 여기서의 盜賊이란 곧 義에 對稱되는 모든 것 즉 慾心 등을 擬人하여 盜賊이라 命名한 것인데, 이들 盜賊의 침범은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었으며 惺惺翁이 이를 退治하여 天君을 제자리에 회복시키게 했으나 또 남은 도적이 침범함에 孟浩然이 이를 격퇴한다. 그러나 아직도 완전한 소탕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재차 토벌하려 하자 惺惺翁이 이를 만류하되, 우리 先王께서는 德을 빛내기 위해 힘쓰시고 싸움을 좋아하지 않으셨으니, 임금께서는 이를 잘 생각하시어 널리 文德을 선전하신다면 석달이 채 못되어서 저 완강한 도적들이 저절로 들 아래 귀순하리라고 간했다. 그러자, 天君은 군사를 쉬게 하고 文教를 숭상하여 虞帝의 故事를 본받았다. 그래서 남은 도적은 다 항복 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것은 지금도 모든 사람의 마음 즉 天君의 나라에 항시 慾心이 殘存하고 있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여기서 盜賊이 거처하는 곳을 보면,

34) 吾善養吾浩然之氣(孟子, 公孫丑).

35) 有孟浩然者 其爲人也 有至剛至大之氣 嘗爲孟子所養 故冒姓孟氏 於是遂應募 自言 千萬人吾往 君乃以爲元帥 尊之至養之至 與謀國事…… 浩然乘意馬 披忠臣甲 擁仁義楯 前堅勿字旗 遵大路而行 出帥以律 觀者嘆曰 此眞將軍(滄溪集 卷之十六, 義勝記).

## 滄溪의 生涯와 文學

큰 바다가 그 남쪽에 둘러있으니 그 이름은 宦海라 했다. 이는 곧 도적의 제일가는 要害地였다. 그 험센 물결은 햇빛에 반짝이며 하늘을 뒤덮는 듯했다. 앞선 배가 이미 없어지자 뒤에 따른 자도 수없이 많아서 꺾어진 노와 쓰러진 짐대는 몇척개나 되는지 모를 정도였다. 도적을 치러온 군사는 흔허들 이곳에 이르자 回軍하곤 했다. 또 關門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名利關이라 하였고, 山은 愁山이라 하였으며, 깊은 때는 육십구렁이라 이름하였다.<sup>36)</sup>

라고 한 점에서 보면 여기서의 盜賊이란 바로 人間들 누구에게나 자리하고 있는 慾心을 擬人하여 일컬었음을 알 수 있다.

### 4. 葛藤 構造

義勝記는 다른 天君小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善人型의 人物과 惡人型의 人物 즉 天君 아래에 등장되는 忠臣型의 人物과 奸臣型의 人物 사이의 葛藤構造로 파악할 수 있다. 이 作品에서의 主人公인 天君을 除外하고 天君 아래에 등장하는 忠臣型의 人物로는 惺惺翁과 孟浩然이 있고, 奸臣型의 人物로서는 盜賊이란 慾心의 擬人인 人物이 등장한다.

義勝記의 構造도 다른 天君小説과 마찬가지로 天君의 나라에서 忠臣型과 奸臣型 人物들의 葛藤에서 忠臣型 人物의 勝利로 終結되는데, 古小説에 나오는 善惡의 對決에서 善의 勝利라는 千篇一律의 構造를 여기서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天君小説에서의 天君은 곧 心인데 心統性情의 論理를 小説로 虛構화한 것이므로, 天君 아래에 등장되는 忠臣型 人物을 性에다가, 奸臣型 人物을 惡情에 비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의 性은 純善無惡한 本然의 性이 되도록 하는 人物이고 情은 善惡不定의 惡의 情에 비유되는 人物로 나타나고 있다.

理氣二元論者의 心性論이나, 혹은 氣一元論者의 心性論을 볼 때, 그들 各各의 主張하는 學說은 現代哲學에서 心理의 作用을 知·意·情의 세 가지로 보는데에 比하면 多少의 不備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두 學說의 공통되는 根幹의 源流는 心·性·情의 作用이 서로 函數的 關係를 가지고 있다는 데에 그 生命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 가운데는 調和가 있을지언정 西洋哲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生成鬭爭說이라든가, 혹은 心理分裂說, 意志鬭爭說이라든가, 또는 知·意·情의 矛盾, 衝突과 같은 作用은 볼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西洋哲學에 있어서는 知·意·情의 作用이 各各 그 사이에 뛰어 넘을 수 없는 어떠한 線이 가로 놓여 있어 爭의 關係에 있지마는 儒教哲學에 있어서는 心·性·情의 作用이 調和의 關係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sup>37)</sup>

그리고 心에는 內面과 外面이 있는데, 內面은 性이 되고, 外面은 情이 된다.<sup>38)</sup> 心은

36) 有大海經其南 曰宦 乃賊第一要害處 波濤洶湧 沃日滔天 前船既覆 後來者不止 崩牆敗楫 曾不知幾千 而討罪之帥 往往至此而回軍 有關曰 名利 有山曰 愁 有壑曰 慾(滄溪集 卷之十六, 義勝記).

37) 鄭鍾復, 儒教哲學思想概說(螢雪出版社, 1978) p. 111.

38) 潛室陳氏曰 心居性情之間 向裏即是性 向外即是情 心居二者之間而統之 所以聖賢工夫只在心裏著到 一舉而兼得之 橫渠此語大有功(性理大全 卷三十三 p. 21).

中間에서 內面인 性과 外面인 情을 媒介한다는 것이며, 또 未動이 性이 되고 已動은 情이 되는데 心은 性과 情을 貫徹한다고 한다.<sup>39)</sup>

性에는 어떻게 만드는 原理가 一定하게 주어져 있는데 이 原理에 따라 主宰 運用하는 것이 心이며, 情이 어떻게 나아가는 길로 주어져 있을 때 이 길을 따라 主宰해서 나아가게 하는 것도 心이다.<sup>40)</sup> 心이 動靜 時를 主宰한다고 하는 것은 性情 兩領域을 主宰한다는 것이 된다.<sup>41)</sup> 이와 같이 말하면 心·性·情이 各各 別個의 것으로 생각될 수 있겠으나 實은 같은 것이다.<sup>42)</sup> 곧 그 바탕에서 보면 心·性·情이 같은 것이나 運用되는 면에서 보면 각각 다르다는 것이다.<sup>43)</sup>

具體적으로 性과 心을 연결하는 媒介者는 知이다. 그래서 知를 性之理라고도 하고 心之靈이라고도 한다.<sup>44)</sup> 즉 同一한 知를 性의 측면에서 보면 理라 할 수 있고, 心의 측면에서 보면 靈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또 心의 一部인 思도 知를 資料로 해서 實現된다고 말하고 있다.<sup>45)</sup>

心統性情의 意味에서 본 바와 같이 情은 心의 一部分이 된다. 心의 여러 部分 중에서 더욱 重要的 意<sup>46)</sup>는 情을 바탕으로 發顯한다<sup>47)</sup>고 한다. 心의 本體는 本來 善한 것이나 心의 바탕인 情이 外物에 感할 때 過·不及의 폐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心도 善·不善이 생긴다는 것이다.<sup>48)</sup>

이와 같은 心統性情의 論理를 虛構化하여 心·性·情의 作用이 調和의 關係에서 生成 鬪爭의 樣相으로 비유되어 小說的인 展開를 爲한 變貌를 보인 것이 곧 天君小說이며, 따라서 義勝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義勝記를 비롯한 後代 天君小說 모두가 이러한 心理 現象을 교묘히 襲用하면서 小說로서의 展開를 보인 것이므로, 心統性情의 論理에서의 變貌와 援用의 兩面性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前項에서 叙述한 義勝記의 意味機能段落에 依하여, 天君 아래에 등장되는 忠臣型의 人物 즉 惺惺翁, 孟浩然과 奸臣型의 人物 즉 盜賊 등과의 葛藤 樣相을 意味機能段落에서

39) 未動爲性 已動爲情 心即問乎動靜而無不在焉(性理大全 卷三十三, p. 4).

40) 心主宰之謂也 動靜皆主宰 非是靜時無所用 及至動時方有主宰也(性理大全 卷三十三, p. 13).

41) 據性上說 寂然不動處是心亦得 據情上說 感而遂通處是心亦得 故孟子說 盡其心者 知其性也(語卷五, p. 19).

42) 故以其未發 而全體者言之則性也 以其已發而妙用者 言之則情也 然心統性情只就渾淪一物之中 指其已發未發而爲言耳 非性是一箇地頭 心是一箇地頭 情又是一箇地頭 如此懸隔也(性理大全 卷三十三 p. 14).

43) 性只是理 情是流出運用處 心之知覺即所以具此理而行此情者也(性理大全 卷三十三, p. 15ff.).

44) 問知覺是心之靈 固如此 抑氣之爲邪 曰不專氣 先有知覺之理(語類 卷五 p. 7).

問心是知覺 性是理 理與心如何得貫一 曰不須去貫通 本來貫通(語類 卷五 p. 8).

45) 問知與思 於人身最緊要 曰然 二者也只是一事 知如手相似 思是教這去做事也 思所以用生知也(性理大全 卷三十三, p. 46).

46) 心者一身之主宰 意者心之所發 情者心之所處 志者心之所之 此於情 意尤重(語類 卷五, p. 34ff.).

47) 問意是心之所發 又說有心而後有意 則是發依舊是心主之 到私意盛時 心也隨去 曰固然(性理大全 卷三十三, p.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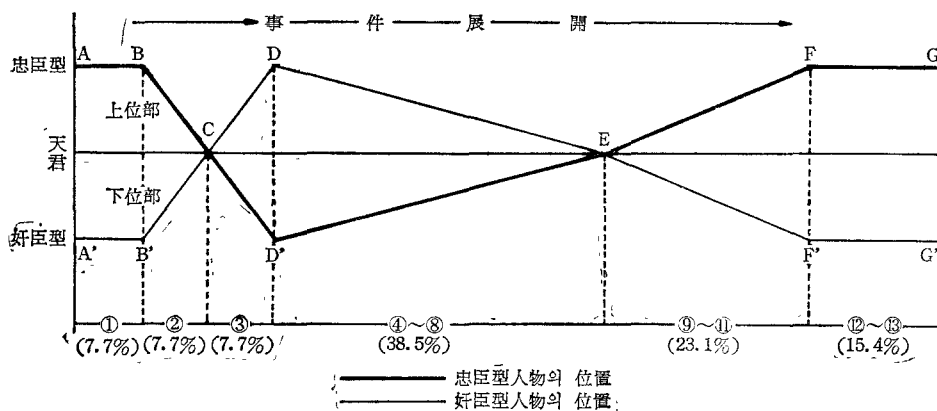
48) 却是心之本體 本無不善 其流爲不善者 情之遷於物而然也(性理大全 卷五, p. 7).

孔泳立 朱子에 있어서 心統性情 問題, 東洋文化研究 第五輯, (慶北大學校 東洋文化研究所, 1978) p. 320ff.

간추린 數나 各 段落의 敘述量과 表現 內容 등으로 圖式化 할 수도 있지만, 本研究에서는 各段落의 分量이나 그 內容을 參照하면서 天君 아래에 등장하는 兩型 人物의 對立·葛藤에 해당되는 段落數를 作品 全 段落의 比率에 依하여 事件의 克服 過程을 圖式化하고자 한다.

段落의 敘述 樣式이나 量 혹은 表現內容은 事件展開에 있어 天君小說 作品間에 큰 變化가 없는데 比해서, 作品을 通해 作者의 意識이나 時代相의 反影을 照明하는데는 段落數의 多寡 정도와 段落의 克服過程이 더욱 重要하기 때문에 對立에서 下降과 上昇, 다시 上昇과 下降, 對立의 展開過程에 해당되는 段落의 數에 따라 全體와 各 段落의 構造를 一目瞭然하게 圖式化하면 다음과 같다.<sup>49)</sup>

忠臣型人物	A~B	B~C	C~D'	D'~E	E~F	F~G
奸臣型人物	A'~B'	B'~C	C~D	D~E	E~F'	F'~G'
段落	①	②	③	④~⑧	⑨~⑪	⑫~⑬
段落數	1	1	1	5	3	2
全體比率	7.7%	7.7%	7.7%	38.5%	23.1%	15.4%



앞의 圖式에서 A~B와 A'~B'는 奸臣型 人物이 忠臣型 人物에 制御되어 天君의 나라에는 太平歲月이 영위되고 있음을 뜻하며, 이러한 狀況은 兩型 人物의 對立, 葛藤을 거쳐 事件의 結末 部分인 F~G, F'~G'와 同一한 樣相을 보이고 있다.

B~C와 B'~C는 奸臣型 人物이 忠臣型 人物의 制御를 벗어난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서 天君의 나라에는 和平이 깨어져 混亂의 境地에 접어들음을 뜻한다. 그래서, 忠臣型 人物의 위세가 下降하고 奸臣型 人物은 得勢하게 된다.

49) ①~⑬까지의 번호는 義勝記의 意味機能段落의 번호이며, A-B-C-D'-E-F-G는 義勝記에 등장하는 忠臣型 人物의 位置를 表示한 것이고, A'-B'-C-D-E-F'-G'는 奸臣型 人物의 位置를 나타낸 것이다. 以下부터는 그 부호만 쓴다.

그리고 C~D와 C~D'는 이러한 두 類型 人物의 葛藤에서 忠臣型 人物이 奸臣型 人物에게 정복당해 忠臣型 人物이 下降하고 奸臣型 人物이 上昇되는 狀況으로 天君의 나라가 큰 혼란을 맞게 된 것을 表示함이다.

D~E와 D'~E는 天君이 忠臣型 人物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을 뒤우치고 잘못을 깨닫게 되어 再起를 노리게 됨을 뜻함인데, D와 D'는 天君이 理性을 완전히 잃어버린 狀態를 가리킨다. E~F와 E~F'는 忠臣型 人物과 奸臣型 人物의 葛藤에서 忠臣型 人物이 得勢하여 奸臣型 人物을 退治하는 樣相을 뜻함이다.

그래서 F~G와 F'~G'의 狀況은 처음과 같이 和平한 天君의 나라로 恢復됨을 뜻함이니, 天君이 理性을 恢復, 정상적인 人間으로 돌아왔음을 가리킨다. 이러한 構造의 圖式은 天君小說 全般에 걸쳐 대체로 類似한 樣相을 띠고 있지만, 時代的 變遷에 따라 다소 다른 樣相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앞의 圖式에서 보인 바와 같이 A~B와 A'~B'에 해당되는 것이 天君小說의 嚆矢인 天君傳이 6個(①~⑥)의 段落임에<sup>50)</sup> 비해, 義勝記는 1個(①)段落만이 해당되어 導入部가 매우 간략하게 서술되고 있음을 한눈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당시에 유행하던 우리 古小說의 導入部 大部分이 「大明 ○○년에……」라고 시작하여 年代와 家系에 對한 설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典型的인데, 義勝記는 이러한 構造에서 완전히 벗어난 作品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天君의 나라가 太平歲月을 찬송한다라고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義勝記의 導入部다.

B~C와 B'~C에 해당되는 段落도 바로 하나 뿐 (②)으로 너무 간략해서 導入部인 ①으로써는 事件의 展開가 어디로 向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和平하던 主人公 天君의 德이 쇠약해진다는 것은 天君小說의 一般的인 패턴이며, 또한 人間の 心理的인 現象이요, 人君이 경계해야 할 점이다. 여기서 天君의 德이 쇠퇴함에 앞의 圖式에서 B~C는 급격히 下降하고, 반대로 B'~C는 上昇한다. B~C와 B'~C가 상호 下降하고 上昇하는 勢는 事件展開가 너무 간략해서 빠르게 交叉點까지 이르게 되는 것으로 그려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C~D와 C~D'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도적이 날뛰어 天君의 나라가 어지러워짐에 따라 天君이 가장 큰 困境에 처해 있음을 뜻한다. 이에 해당되는 段落도 한 段落(③)으로 도적이 침범해 오는 過程이나 天君이 황야로 쫓겨나기까지의 자세한 叙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描寫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拙速함이 露出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困境에 처한 天君은 하는 수 없이 황야로 도망하여 온 천하에 떠돌아 다니기를 마치고 晉公子 重耳가 外國에 亡命生活하듯한 지 10년이 되었다고 하여 事件은 1個 段落에 불과하고, 10년이나 되는 긴 세월의 行動 描寫는 전혀 없다.

50) 金光淳, 天君小說研究(螢雪出版社, 1980) p.115ff.



여기까지가 作品의 事件 展開上으로 보아 全體의 半에 해당되지만 실제 作品에서는 13個 段落中 3個 [①, ②, ③]의 段落으로 構成되어 있다. 여기서 이 小說을 前半部와 後半部로 잘라 볼 때 3:10이라는 比重으로 前半部를 가볍게 처리해 버린 拙速한 構造임이 드러나며, 동시에 얼마나 단순하게 事件이 展開되고 있는지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事件의 描寫를 얼마나 소홀히 했다는 증거로도 볼 수가 있다.

義勝記는 滄溪의 習作期의 作品인 만큼 作品 構成에 있어서도 이러한 많은 問題點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앞의 圖式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이에 比하여 後半部에는 前半部에 비해서 너무 사소한 事件까지 介入시키고 있어 作品構造는 前半部와 정반대의 樣相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圖式에서 確認된다.

D~E와 D'~E는 天君의 나라에 侵入한 도적을 惺惺翁이 물리쳐 天君을 王位에 오르게 하고, 孟浩然을 시켜 남은 도적을 치게 하는 內容인데, 매우 상세하게 描寫되어 있다. 이는 ④, ⑤, ⑥, ⑦, ⑧의 5個 段落(전체의 38.5%)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段落의 數만 해도 義勝記의 작품 前半部보다 더 많은 事件의 展開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섯 개의 段落中 ④ 段落은 惺惺翁이 나타나 도적을 물리치고 天君을 임금 자리에 오르게 하는 事件의 展開가 전혀 없고, 다만 직접적인 表現方法으로 始終一貫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孟浩然이 天君의 命을 받아 군사를 내어 남은 도적을 치려 하는데, 군사들에게 힘써 주도록 당부하면서, 殘黨을 쳐 和平을 되찾는 具體的인 事件은 다음의 構造 E~F와 E'~F'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해당되는 段落은 ⑨, ⑩, ⑪이다.

이들 段落의 構造로 보아 天君의 나라에 和平을 되찾으려는 의지의 結果가 예견된다. 이 部分의 事件 描寫가 가장 具體的으로 서술되고 있다. 여기서 마음이란 私利私慾에 끌려도 敬以直內하고 義以方外하는 儒家의 心身修養法으로 敬義夾持하면 반드시 正義가 勝利한다는 作者의 意識을 쉽게 볼 수 있다.

F~G와 F'~G'는 天君의 나라에 平濫이 지속되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⑫, ⑬의 두 段落이 해당된다. ⑬ 段落에서는 도적의 몇몇 殘黨들이 다시 侵入함에 天君이 군사를 내어 치려 하자 惺惺翁이 文德으로 다스릴 것을 諫하여 남은 도적은 항복받지 못했으나 이는 愁城誌에서 愁城의 賊을 討伐하였으나 屈原만은 항복받지 못했다는 構成과 一致된다. 이는 天君의 나라 즉 마음에 慾이란 도적이 침입함에 義로서 퇴치하였으나 또 다시 天君의 나라에 침입한 構造는 마음이란 항상 慾이란 도적이 주위에 넘겨보고 있다는 心像의 表現이다. 再侵한 盜賊을 退治하였으나 아직 殘黨이 남았다는 것은 곧 마음(天君 즉 心)의 주변에는 慾이란 도적이 항상 웅크리고 있다는 人間의 心理的인 現象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作品 ⑬ 段落에서 殘黨을 소탕하려다가 惺惺翁의 주장대로 文教에 教化를 받아 歸順할 때까지 살려둔 것으로 끝맺고 大團圓의 막을 내린 것은 사람의 마음 주위에는 도적과 같은 慾心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心理的인 現象의 配慮에서

의 結末을 보인 것이라 생각된다.

#### 4. 文學的 意義

義勝記는 天君小說의 一種이다. 따라서 義勝記의 文學的 意義는 곧 天君小說의 文學的 意義와도 相通한다.

우리 나라에는 朱子學이 展開된 이후의 道文一致思想이 당시의 文壇을 지배하였는데, 天君小說의 대부분 作者들도 讀者들에게 性理學的인 心經正學을 工夫시키기 위한 方便의 하나로서 天君小說을 創作하였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小說 그 自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心學이 더욱 중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文學的인 立場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作者의 意圖가 아니라 作品自體의 結果이다.

또한 天君小說의 대부분의 내용이 心經의 內容과 根本的으로는 一致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 경우에서 역시 중요한 것은 內容의 根本的인 一致가 아니라 形象化를 통해 나타난 구체적인 現象들이라 할 수 있다.

作者의 意圖와 內容의 基本的인 一致를 들어 文學的 價値를 부정한다면, 이는 皮相的인 觀察에 얽매인 短見이요, 文學 作品 自體를 보는 눈이 既往의 觀念 때문에 흐려져 있는 것으로 풀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몇 가지 點을 念頭에 두고 天君小說의 일종인 義勝記의 文學的인 意義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心性을 擬人하여 小說의 形式으로 轉換했다는 점, 즉 心經正學의 內容에 일정한 시간과 공간을 부여하여 小宇宙의 世界를 設定하고 抽象的인 心性의 要素를 感覺的인 人物로 形象化 함으로써 既存 理論에 作者의 體驗을 通한 意識과 創意力이 投影되어 小說 作品으로서 具體化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心性의 小說化로 整齊된 小說로서의 構造美를 갖춘 것이니, 이는 앞의 葛藤構造分析에서 證明된 바 있다.

그래서 小說文學의 表現 道具를 빌어 治國의 方法으로 治心의 方法을 提示한 作者의 意圖는 心經正學이기 이전에 小說로서 당시의 時代相을 감안한다면, 義勝記의 文學的인 價値는 높이 評價된다.

둘째, 天君小說의 하나인 義勝記는 忠臣型 人物과 奸臣型 人物의 對立·葛藤에서 忠臣型 人物은 奸臣型 人物의 공격으로 궁지에 처했다가 힘겹게 이를 극복하는데, 여기서 兩型人物의 葛藤은 곧 性과 情의 葛藤에 비유되기 때문에 人間이 情을 억압하고 性을 회복하는데는 그만큼 역경과 진통이 따른다는 견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실제적인 체험이든 상상적인 체험이든 간에, 일종의 체험을 作者가 作品에다가 小說 美學의으로 승화시켰다는 데 중요한 意義가 있다.

小說 內容에서 중요한 것은 忠臣型 人物이 奸臣型 人物을 마침내 제압할 수 있다는 決定論的인 思考나 樂觀論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은 性과 情의 葛藤을 극복하기

## 滄溪의 生涯와 文學

어렵다는 사실과, 性이 情을 억압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要求된다는 사실을 心經의 理論에 비유하여 小說 美學的인 構造로 展開시켰다는데 중요한 意義가 있다.

셋째, 義勝記는 일종의 觀念小說이다. 創作의 意圖가 어디에 있었든, 또는 作者의 豫備 知識을 어디에서 얻어 왔든지 간에 作者는 人間 心理를 깊이 省察하고 解剖하여 다음의 行路를 구체적으로 形象化하였다. 忠臣型의 人物이 奸臣型의 人物과의 치열한 葛藤을 거쳐 결국 奸臣型人物을 制御함으로써 天君의 나라에 平和가 온다는 것은, 人間은 本能的 慾求와 理性 사이의 갈등을 겪지 않을 수 없으며 後者가 前者를 制御했을 때 비로소 마음에 平和가 온다는 心理學的인 省察을 보여준 데서 小說로서의 文學的 價値는 더욱 높이 評價된다.

넷째, 義勝記를 爲始한 天君小說의 作家가 모두 儒學者들인데, 이는 平民, 庶民의 專有物인 것처럼 認知되어 온 小說文學이 이러한 天君小說들로 말미암아 士大夫의 階層에서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이들 天君小說의 作家들은 小說을 배경하는 儒學者들과 小說을 創作한 作家들의 中間에 위치하면서 小說과 儒學思想과의 調和라는 역사적 的의를 갖고, 儒學者도 小說을 쓰고 읽을 수 있는 길을 터 놓았다. 더구나 小說 排擊論者들은 小說文體도 問題視하였으나, 그 內容이 淫談稗說과 男女期會란 점에서 더욱 배격하였으니, 義勝記에서는 이를 극복하여 題材나 素材 기타 등장 인물을 모두 心性論에서 借用하여 儒學思想을 小說化한 점에서 중요한 意義를 지니고 있다.

다섯째, 義勝記를 爲始한 天君小說을 읽음으로써 心經正學을 익히고 배우는 한편, 小說의 興味를 느낄 수 있어, 당시 小說을 배경한 儒學者들에게 小說의 効用 價値를 일깨워 주었으며, 小說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켜 小說을 배경한 儒學者들과 天君小說 이외의 小說 作家群과의 거리를 보다 좁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따라서 小說에 對한 文學的 價値의 認識을 점진적으로 變貌시킨 媒介의인 役割을 하게 되었다<sup>51)</sup>고 할 수 있다.

## Ⅶ. 結 論

이상 本論에서 논의한 바를 結論的으로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林泳은 字를 滄溪, 本貫은 羅州로서, 僉知中樞府事 一儒의 아들로 仁祖 27年(1649 A. D.)에 태어났다. 그는 顯宗 6年(1665 A. D.) 17세의 나이로 司馬試에 合格하였고, 顯宗 12年(1711 A. D.)에 大科에 應試하여 庭試文科乙科에 及第하였다. 그는 靜觀齋 李端相과 朴世采의 門人이었으며, 吏曹正郎·檢詳·副提學·大司憲·全羅道觀察使 등을 역임하였고, 肅宗 20年(1694)에는 大司諫·開城府 留守를 지내고 翌년에는 副提學

51) 金光淳, 天君小說研究(螢雪出版社, 1980) pp.98—99 參照.

이 되었으나 病으로 눕게 되어 王으로부터 藥物을 下賜 받았고, 그뒤 參判에까지 이르렀다가 肅宗 22年(1695 A.D.)에 세상을 떠났다. 羅州의 滄溪書院과 咸平의 水山祠에 祭享되고 있다. 그는 經史에 정통함은 勿論, 특히 文章이 뛰어났고, 宋時烈, 宋浚吉에게도 修學한 畿湖學派의 학자였으나, 理氣說에 있어서는 李珥의 理氣一元論에는 찬성하였으나 氣發理乘論에는 반대의 입장을 주장했다. 그리고 拙修齋 趙聖期와의 往復한 서한이 빈번한 점으로 보면 그의 영향이 매우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趙聖期는 傳奇小說을 즐겨 써서 張承相傳을 지었고, 作者에 다소의 異說은 있지만 彰善感義錄 등을 지었다. 그는 燕岩과 磻溪와 함께 列擧된 바 있으나, 拙修齋나 燕岩과는 시대적인 차이로, 하나는 性理學을, 또 하나는 北學을 강조하였으나, 그들은 실로 일맥 상통하는 점이 없지 않았다. 따라서 滄溪도 靜觀齋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만큼 그는 小說에 대한 전통적인 見解가 매우 깊었다고 생각된다.

둘째, 그의 文學으로서의 漢詩文이 滄溪集에 傳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義勝記에 對해 서단 考察하였는데, 먼저, 이 作品의 創作年代를 顯宗 5年(1664 A.D.) 그의 나이 16歲時에 지은 作品임을 밝혔다. 그리고 이 作品의 創作背景은 당시의 軍談小說과 稗官小說 그리고 中國에서 流入된 小說 등의 영향에서 이루어졌다고 類推된다.

그리고 義勝記의 意味機能段落을 13個로 나누어 이 作品의 構造分析이나 理解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義勝記에 등장하는 主人公 天君을 비롯하여 忠臣型의 人物인 惺惺翁과 孟浩然 그리고 奸臣型의 人物인 盜賊 등에 對해 자세한 考究를 하였다.

그리고 天君 아래에 등장하는 忠臣型의 人物과 奸臣型의 人物 사이에 전개되는 對立과 葛藤의 樣相을 圖式化하면서 一目瞭然하게 볼 수 있도록 提示하면서 作者의 意識構造를 考察하고 더 나아가 義勝記가 지닌 文學的인 意義를 穿鑿하였다.